

## 「경영교육연구」 10년: 성과와 시사점\*

장 지 인\*\*  
윤 병 섭\*\*\*

「경영교육연구」는 1997년 5월 1일 1권 1호를 시작으로 2007년 8월 31일 11권 1호까지 통권 23호가 발간되었다. 이 기간 동안 특집 30편, 논문 58편, 사례 127편 등 총 215편을 발표하였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구성별 편당 저자수를 보면 총 215편을 366명의 저자가 집필하였으며, 편당 저자수는 1.70명으로 분석되었다. 특집은 공저자 수가 적은 반면 논문은 공저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단독저자가 63편으로 게재논문의 49.6%를 나타내고 있으며, 2인의 공저자가 42편으로 33.1%를 나타내어 82.7%인 105편이 1인 또는 2인에 의해 저술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둘째, 사례는 연구대상을 국내기업에 국한한 경우가 99편으로 사례 연구논문 127편 중 78.0%를 차지하고 있어 사례 연구대상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기업의 성공사례 등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소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한 사례는 9편이 발표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 진출하여 현지화에 성공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사례를 동남아에서 탈피하여 미주, 구주 지역으로 확산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

「경영교육연구」는 경영사례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최소한의 유인을 마련하여 경영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학계 및 기업계에서 새로운 경영학 교육교재 및 방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며, 경영학 교육에 있어 사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사례개발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국경영학회의 관련 경험을 축적한 데 기인한 결과로 보여 진다. 향후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의 발전을 통해 「경영교육연구」의 발전이 이루어져 우리 경영현실을 담은 사례의 개발과 보급, 경영교육 방법론의 연구와 확산, 사례연구 활성화를 통해 경영학 교육 및 연구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영선진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통해 한국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주제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사례연구원, 경영교육연구

### 1. 서론

1956년 12월 22일, 본격적 의미의 경영학이 활발히 도입되고 보급되던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경영학 관련 학회로서 한국경영학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2006년 창립 50주년을 넘겼다(한국경영학회, 2007, pp. 14-15). 한국경영학회가 창립된

이후에 경영학 관련 학회가 많이 창립되었고,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0년대 초·중반에는 기업에서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한 실질적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기업 환경의 변화와 경쟁의 심화에 따라 경영사례의 보급이 요구되는 시점이었고,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새롭고 설득력 있는 이론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기업현장과 직접

논문접수일: 2008. 08. 01.      게재확정일: 2009. 08. 07.

\* 이 논문은 2009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다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교수(ijang@cau.ac.kr), 책임저자

\*\*\*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교수(yoonbs@suv.ac.kr), 공동저자

연계되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경영학회는 사례의 개발과 보급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한국경영학회 부설 기구에서 경영사례를 발굴하여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경영학 연구 및 교육과 실제 경영활동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한국경영학회는 1995년 한국경영학회 부설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을 창립하였다(한국경영학회, 2007, pp.62-68).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은 우리 경영현실을 담은 사례의 개발과 보급, 경영교육 방법론의 연구와 확산, 사례연구 활성화를 통해 경영학 교육 및 연구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영선진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통해 한국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사례 및 경영교육 부교재의 개발, 사례연구 방식에 의한 교육방법의 확산, 경영사례 및 부교재의 보급과 확산 및 유통, 사례중심의 질적 교육, 사례연구의 보급 및 사례연구 자료의 출판, 경영학 교육의 전반적인 지원센터 기능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은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동안 연세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던 1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서울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던 2기,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주관 대학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는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연세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던 1기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① 사례교수법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8차례), ② 전국 대학 경영사례연구대회 개최(4차례), ③ 『경영교육연구』 창간 및 발행(통권 8호로 특집 24편, 논문 12편, 사례 38편 등 총 74편을 게재), ④ 뉴스레터 발행(통권 8호

발행), ⑤ 사례 제공 서비스 사업 실시 등을 전개하였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던 2기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① 사례교수법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1차례), ② 전국 대학 경영사례연구대회 개최(3차례), ③ 『경영교육연구』 발행(통권 9호로 특집 6편, 논문 25편, 사례 48편 등 총 79편을 게재), ④ 뉴스레터 발행(통권 3호 발행), ⑤ 사례서비스 사업 실시 등을 전개하였다. 2005년 이후 2007년까지 주관 대학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는 3기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① 『경영교육연구』 발행(통권 5호로 논문 21편, 사례 41편 등 총 62편을 게재), ② 경영교육연구의 온라인 구독제 실시 등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경영교육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이며, 우편 발송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구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회지를 학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여 받아보는 방식으로, 학회 운영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회원을 제외한 연구회원 및 일반회원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회지를 구독할 수 있다. 학회지 구독제 변경 이후에도 우편 배송을 원하는 회원에게는 오프라인 구독 신청을 통해 일정 비용을 받고 학회지를 우송하고 있다. 온라인 구독제를 실시함으로써 학회의 경상비 지출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인쇄비와 우편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6월,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의 발전 방안과 관련하여 TFT가 발족되었으며,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여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 바 있다(장지인, 2008. 3. 14). 1997년 5월 1일 1권 1호를 시작으로 2007년 8월 31일 11권 1호까지 『경영교육연구』의 발간 현황을 보면 통권 23호가 발간되었다. 2007년 8월 31일 11권 1호까지 특집 30편, 논문 58편, 사례 127편 등 총 215편이 발

표되었다.

경영학 관련 학회, 즉 인사조직, 회계, 마케팅,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그 동안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분야, 주제, 연구방법론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김영배와 한정화, 1993; 이선구와 정연양, 1993; 이진규와 박기찬, 1993; 최만기와 박오수, 1993; 백상용과 박경수, 1995; 권선국과 조성표, 1997; 김용준, 임양환, 박세환, 백수경과 정상호, 1999; 용세중, 1999; 김인수, 2000; 정경수, 진춘동, 송정희와 박종필, 2001; 배종태와 차민석, 2005).

그러나 「경영교육연구」는 창간한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의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경영교육연구」 발간 1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영교육연구」에 발표된 논문의 종합적인 분석은 지금까지 이룩한 연구업적에 대한 회고도 되겠지만, 그 보다 향후 더욱 발전된 연구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경영학회 부설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의 다양한 활동 중 학술활동의 하나인 「경영교육연구」를 분석하고 이 학회지가 어떠한 분야의 경영사례를 게재하였는지 등 연구동향과 연구 특성을 밝혀 경영학 교육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즉, 「경영교육연구」에 10년 동안 게재된 특집, 논문,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등을 분석하고 변화추이를 알아보는 등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학술지 연구에 대한 기여와 성과는 물론 시사점도 정리하여 앞으로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의 방향과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앞으로 「경영교육연구」가 연구해야 할 연구내용과 활용해야 할 연구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II. 「경영교육연구」의 발행과 구성

### 2.1 「경영교육연구」의 발행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은 1997년 「경영교육연구」를 창간하였다. 그 이유는 기업 환경의 변화와 경쟁의 심화에 따라 경영사례의 보급이 요구되는 시점이었고, 기업현장과 직접 연계되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요구되어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새롭고 설득력 있는 이론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경영교육연구」는 경영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한편, 학계 및 기업계에서 새로운 경영학 교육교재 및 방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경영교육연구」는 한국경영학회 회원간 경영교육에 관련된 정보의 공유, 창의적이고 유용한 신경영 교육방식의 확산, 학계와 기업계의 협력을 통한 경영교육 혁신 등을 주요 발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에 부합되는 독창적 연구와 응용논문, 경영사례, 논평 등을 게재하고 있다.

「경영교육연구」의 게재논문 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경영사례개발(사례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침과 방법 등)
- ② 경영사례 교육방법: 경영학 교육의 새로운 교과과정과 과목
- ③ 새로운 경영교육 방법에 대한 소개(현장방문, 팀티칭, 그룹프로젝트 등)
- ④ 산학협동형 경영학 교육에 대한 연구 또는 논의
- ⑤ 새로운 경영교육 교재의 활용
- ⑥ 기타 경영교육의 개선과 혁신을 위한 연구 또는 논고

「경영교육연구」의 창간호는 1997년 5월 1일 발간되었다. 창간호는 '기업윤리 교육'을 특집주제로 하여 3편을 다루었고, 새로운 경영학 교육에 관한 논문과 경영학 교육의 경향 및 문제점을 시사하는 논평, 그리고 사례를 실었다. 연 2회 발간을 목표로 2001년까지는 매호마다 특집주제를 선정하여 다루었다.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발간함과 아울러 사례만을 게재한 사례특별호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제2권 3호, 제3권 2호, 제4권 2호 등이 사례특별호이다. 지금까지 「경영교육연구」는 1997년 5월 1일 1권 1호를 시작으로 2007년 8월 31일 11권 1호까지 통권 23호가 발간되었다. 2007년 8월 31일 11권 1호까지 특집 30편, 논문 58편, 사례 127편 등 총 215편이 발표되었다.

2.2 「경영교육연구」의 구성

2.2.1 1기(1995년~1999년)

1기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동안 연세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던 기간으로 「경영교육연구」를 창간하던 때이며, 특집을 중심으로 통권 8호를 발행하였다(〈표 1〉 참조). 특

집 주제는 기업윤리 교육, 글로벌 경영 전문인력 양성,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영학 교육, 창업을 위한 경영학 교육, 교육개혁과 경영학 교육제도, 기업의 경영교육 등 경영교육 발간 목표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2기로 넘어가면서 특집을 다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발간 구성별 분류는 〈표 2〉와 같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동안 통권 8호를 발행하면서 특집 24편, 논문 12편, 사례 38편 등 총 74편을 게재하였다. 제1기는 특집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를 발간하였으며, 특집이 없는 사례만 특별히 두 번에 걸쳐 발간하기도 하였다. 2권 3호(1998.11)에서 13편, 3권 2호(1999.05)에서 10편의 사례를 게재하였다. 상대적으로 논문을 게재하는 편수는 적었다. 이는 2기 이후 논문을 게재하는 편수가 많은 것과 비교된다.

2.2.2 2기(2000년~2004년)

2기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서울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운영되던 기간이다. 「경영교육연구」를 통권 9호 발행하였다(〈표 3〉 참조). 〈표 3〉을 보면 특집 2회, 사례특별호 1회, 논문과

〈표 1〉 1995~1999년 기간 중 「경영교육연구」 발행 현황

발행 기준월	권호	발행일자	주제 및 구성	원장	발행인	편집 위원장
1997. 5	1권 1호	1997. 5. 1	특집: 기업윤리 교육	김기영	김기영	정구현
1997. 11	1권 2호	1997.12.25	특집: 글로벌 경영 전문인력 양성	김기영	김기영	정구현
1998. 5	2권 1호	1998. 6.20	특집: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영학 교육	정구현	정구현	정구현
1998. 11	2권 2호	1999. 1.20	특집: 창업을 위한 경영학 교육	정구현	정구현	정구현
1998. 11	2권 3호	1999. 1.20	사례특별호	정구현	정구현	정구현
1999. 5	3권 1호	1999. 8.10	특집: 교육개혁과 경영학 교육제도	정구현	손태원	손태원
1999. 5	3권 2호	1999. 8.30	사례특별호	정구현	손태원	손태원
1999. 11	3권 3호	2000. 3. 5	특집: 기업의 경영교육	정구현	손태원	손태원

사례를 6회 발간하였다. 특집은 4권 1호(2000.8)에서 지식경영과 경영교육을 다루었으며, 5권 1호(2001.9)에서 디자인과 경영을 다루었으나 1기처럼 많은 특집을 다루지는 않았다. 논문과 사례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를 구성하였다. 즉, 2기는 「경영교육연구」를 특정 이슈 중심에서 일반적인 사례와 논문으로 체제를 바꾸었다. 논문 및 사례를 ㉠ 교육용 사례, ㉡ 경영실무와 연구에 도움이 되

는 논문, ㉢ 경영교육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문 등 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게재하였다. 그리고 오프라인(off-line)발간을 축소하고 온라인(on-line)발간을 시도, 확대하였다. 또한 2003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으로 교육용사례와 교육방법론 연구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발간 구성별 분류는 <표 4>와 같으며, 특집 6편, 논문 25편, 사례 48편 등 총 79편을 게

<표 2> 1995~2000년 기간 중 「경영교육연구」 발간 구성 현황

발행 기준월	권호	발행일자	특집	논문	사례	논평	서평	기타	계
1997. 5	1권 1호	1997. 5. 1	3	1	1	3	-	2	10
1997. 11	1권 2호	1997.12.25	6	2	3	2	-	-	13
1998. 5	2권 1호	1998. 6.20	4	2	3	-	2	-	11
1998. 11	2권 2호	1999. 1.20	4	3	1	1	2	-	11
1998. 11	2권 3호	1999. 1.20	-	-	13	-	-	-	13
1999. 5	3권 1호	1999. 8.10	4	2	2	-	1	1	10
1999. 5	3권 2호	1999. 8.30	-	-	10	-	-	-	10
1999. 11	3권 3호	2000. 3. 5	3	2	5	-	-	-	10
소계	통권 8호		24	12	38	6	5	3	88

주) 기타는 제1권 1호(축사, 발간사), 제3권 1호(특집 편집의 글) 임

<표 3> 2000~2004년 기간 중 「경영교육연구」발행 현황

발행 기준월	권호	발행일자	주제 및 구성	원장	발행인	편집 위원장
2000. 8	4권 1호	2000.10.30	특집: 지식경영과 경영교육	주우진	손태원	손태원
2001. 4	4권 2호	2001. 4.30	사례특별호	주우진	손태원	손태원
2001. 9	5권 1호	2001.11. 8	특집: 디자인과 경영	안택식	권석균	권석균
2002. 2	5권 2호	2002. 4. 6	논문과 사례	안택식	권석균	권석균
2002. 8	6권 1호	2002. 9.23	논문과 사례	안택식	김성수	권석균
2003. 2	6권 2호	2003. 8.20	논문과 사례	김성수	권석균	권석균
2003. 8	7권 1호	2003. 8.31	논문과 사례	김성수	권석균	권석균
2004. 2	7권 2호	2004. 2.28	논문과 사례	김성수	권석균	권석균
2004. 8	8권 1호	2004. 8.31	논문과 사례	김성수	권석균	권석균

재하였다. 사례만 다룬 경우는 한 번으로 4권 2호 (2001.4)의 7편이다.

1기(1995년~1999년)와 2기(2000년~2004년)의 발간 구성을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특집 구성비율은 32.4%에서 7.6%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논문 구성비율은 16.2%에서 31.6%로 사례, 구성비율은 51.4%에서 60.8%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2.3 3기(2005년~2007년)

3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주관 대학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던 기간이다. 「경영교육연구」를 통권 6호 발행하였으며(<표 6> 참조), 우편 발송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구독제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구독제는 학회지를 학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하여 받아보는 방식으로, 학회 운영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회원을 제외한 영구회원 및 일반회원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회지를 구독할 수 있게 되었다. 학회지 구독제 변경 이후에도 우편 배송을 원하는 회원에게는 오프라인 구독 신청을 통해 일정 비용을 받고 학회지를 우송하고 있다. 온라인 구독제를 실시함으로써 학회의 경상비 지출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인쇄비와 우편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3기 「경영교육연구」는 특집을 기획하지 않았고 논문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영교육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인 경영사례개발(사례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침과 방법 등)에 비중을 두려고 노

<표 4> 2000~2004년 기간 중 「경영교육연구」 발간 구성 현황

발행 기준월	권호	발행일자	특집	논문	사례	논평	서평	기타	계
2000. 8	4권 1호	2000.10.30	3	3	8	-	-	-	14
2001. 4	4권 2호	2001. 4.30	-	-	7	-	-	-	7
2001. 9	5권 1호	2001.11. 8	3	2	3	-	-	-	8
2002. 2	5권 2호	2002. 4. 6	-	2	6	-	1	-	9
2002. 8	6권 1호	2002. 9.23	-	3	4	-	-	-	7
2003. 2	6권 2호	2003. 8.20	-	3	5	-	-	-	8
2003. 8	7권 1호	2003. 8.31	-	4	4	-	-	-	8
2004. 2	7권 2호	2004. 2.28	-	4	4	-	-	-	8
2004. 8	8권 1호	2004. 8.31	-	4	7	-	-	-	11
합계	통권 9호		6	25	48	-	1	-	80

<표 5> 1기와 2기 「경영교육연구」 발간 구성 비교

(단위: %)

발행기	발행호	특집		논문		사례		계	
		편수	구성비	편수	구성비	편수	구성비	편수	구성비
1기(1995년~1999년)	통권 8호	24	32.4	12	16.2	38	51.4	74	100.0
2기(2000년~2004년)	통권 9호	6	7.6	25	31.6	48	60.8	79	100.0

력하였다. 통권 6호에서 논문 21편, 사례 41편 등 총 62편을 게재하였다. 발간 구성별 분류는 <표 7>과 같다. 특집, 논평, 서평 등이 전혀 없었고 오직 논문과 사례만 편집하였다.

### 2.3 「경영교육연구」의 편집방침

「경영교육연구」의 투고요령과 심사과정에 대한 사항은 「경영학연구」의 경우를 따르고 있다. 다만, 「경영교육연구」의 발간 목적에 부응하여 다음의 편집방침과 투고요령을 추가적으로 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즉, 「경영교육연구」는 ① 경영학회 회원 간

의 경영교육에 관련된 연구와 관련정보의 공유, ② 창의적이고 유용한 신경영교육방식의 확산, ③ 경영교육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용 사례의 개발과 활용, ④ 기업현실에 밀착한 보다 의미 있는 연구방법론의 개발과 활용, ⑤ 학계와 기업계의 협력을 통한 경영분야 교육의 혁신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경영교육연구」는 위의 목적에 부합되는 논문 및 사례를 교육용 사례, 경영 실무와 연구에 도움이 되는 논문, 경영교육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문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투고, 심사 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영교육연구」는 보다 흥미롭고 탄력성

<표 6> 2005년 이후 「경영교육연구」 발행 현황

발행 기준월	권호	발행일자	주제 및 구성	원장	발행인	편집위원장
2005. 2	8권 2호	2005. 2. 28	논문과 사례	(정구현)	김성수	전용옥
2005. 8	9권 1호	2005. 8. 31	논문과 사례	(조동성)	김성수	전용옥
2006. 2	9권 2호	2006. 2. 28	논문과 사례	(조동성)	김성수	전용옥
2006. 8	10권 1호	2006. 8. 31	논문과 사례	(채서일)	채서일	전용옥
2007. 2	10권 2호	2007. 2. 28	논문과 사례	(채서일)	채서일	전용옥
2007. 8	11권 1호	2007. 8. 31	논문과 사례	(주인기)	주인기	전용옥

- 주 1) 2005년 8월부터 학회지 온라인 구독제 실시로 평균 1,800부 발간에서 400부 발간으로 축소. 400부로 축소된 물량은 심사자 및 투고자에 대한 발송, 편집위원회 및 학회의 보관(학술진흥재단제출 등 포함), 하드카피를 신청한 기관의 발송에 사용.  
 2) 제8권 2호(2005.2)부터는 「한국경영사례연구원」 원장은 공식이고 한국경영학회장이 대행하고 있음. 원장란의 ( )에 있는 자는 한국경영학회장임.

<표 7> 2005년 이후 「경영교육연구」 발간 구성 현황

발행기준월	권호	발행일자	논문	사례	계
2005. 2	8권 2호	2005. 2. 28	4	5	9
2005. 8	9권 1호	2005. 8. 31	3	8	11
2006. 2	9권 2호	2006. 2. 28	4	9	13
2006. 8	10권 1호	2006. 8. 31	5	7	12
2007. 2	10권 2호	2007. 2. 28	2	8	10
2007. 8	11권 1호	2007. 8. 31	3	4	7
합계	통권 6호		21	41	62



「경영교육연구」는 연 평균 2회 발행하였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발행일자가 발행기준 월을 넘겨서 발행하더라도 매년 5월과 11월을 발행기준월로 정하여 발행하였다. 하지만 이 기준이 2000년과 2001년에 흔들리다가 2002년 이후부터 다시 매년 2월과 8월을 발행기준월로 정하여 발행하였다. 발행일자와 발행기준 월이 일치하는 시점은 2003년 8월에 발행된 7권 1호부터이다.

한편, 「경영교육연구」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특집, 논문, 사례, 논평 등 다양한 내용을 구성하였으나 2002년부터 논문과 사례 중심으로 구

성하였으며, 논문보다는 사례를 많이 신도록 노력하였다. 「경영교육연구」특집은 8회를 발행하였다. 발행구성과 논문 편수를 보면 <표 10>과 같다.

3.1.2 분석대상과 분석내용

일반적으로 학술단체는 정기적으로 학술논문을 발간한다. 그리고 학회 등 학술단체뿐만 아니라 각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도 다양한 유형의 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물론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공공 및 민간연구소에서도 많은 보고서를 간행

<표 9> 「경영교육연구」 발행구성

발행구성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특집	9	8	7	3	3							30
논문	3	5	4	3	2	5	7	8	7	9	5	58
사례	4	17	17	8	10	10	9	11	13	16	12	127
논평	5	1										6
서평		4	1			1						6
기타	2		1									3
계	23	35	30	14	15	16	16	19	20	25	17	230

주) 기타는 제1권 1호(속사, 발간사), 제3권 1호(특집 편집의 글) 임.

<표 10> 「경영교육연구」 특집 발행구성과 논문 편수

발행 기준월	권호	발행일자	주제 및 구성	논문편수
1997. 5	1권 1호	1997. 5. 1	기업윤리 교육	3
1997. 11	1권 2호	1997.12.25	글로벌 경영 전문인력 양성	6
1998. 5	2권 1호	1998. 6.20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영학 교육	4
1998. 11	2권 2호	1999. 1.20	창업을 위한 경영학 교육	4
1999. 5	3권 1호	1999. 8.10	교육개혁과 경영학 교육제도	4
1999. 11	3권 3호	2000. 3. 5	기업의 경영교육	3
2000. 8	4권 1호	2000.10.30	지식경영과 경영교육	3
2001. 9	5권 1호	2001.11. 8	디자인과 경영	3
	계			30

물로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은 한국경영학회 부설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이 발간하는 『경영교육연구』에 게재된 학술논문이다. 1997년 5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10년 동안 『경영교육연구』에는 경영, 경제, 무역 등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그리고 특집, 논문, 사례뿐만 아니라 논평, 서평, 축사, 발간사, 편집의 글 등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10년 동안 『경영교육연구』에 게재된 특집 30편, 논문 58편, 사례 127편 등 총 215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또한 분석내용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였는가를 정량적으로 밝힌 특집, 논문, 사례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학술논문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은 논평, 서평, 축사, 발간사, 편집의 글 등은 분석대상과 분석내용에서 제외한다.

3.1.3 분석방법

1997년 5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10년 동안 『경영교육연구』에 게재된 특집, 논문, 사

례 등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분석한다. 특히 논문과 사례의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분야 등을 심도있게 분석한다.

3.2 발행구성별 편당 저자수 분석

『경영교육연구』 발행구성별 편당 저자수를 보면 <표 11>과 같다.

1997년 5월 1일 1권 1호부터 2007년 8월 31일 11권 1호까지 10년 동안 통권 23호가 발간되었다. 이 기간 동안 특집, 논문, 사례 등을 연도별 편수 및 저자수로 정리하고 이를 편당 저자수로 분석한 결과 특집, 논문, 사례 총 215편을 366명의 저자가 집필하였으며, 편당 저자수는 1.70명으로 분석되었다. 발행구성별 편당 저자수를 보면 특집은 1.20명, 논문은 1.93명, 사례는 1.72명으로 분석되었다. 특집은 공저자 수가 적은 반면 논문은 공저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편당 저자수를 연도별로 보면 체계적인 저자수의 증가나 감소의 변화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표 11> 『경영교육연구』 발행구성별 편당 저자수

발행구성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특집	편수	9	8	7	3	3							30
	저자수	9	10	10	4	3							36
	편당 저자수	1.00	1.25	1.43	1.33	1.00							1.20
논문	편수	3	5	4	3	2	5	7	8	7	9	5	58
	저자수	7	14	5	4	3	9	15	17	12	18	8	112
	편당 저자수	2.33	2.80	1.25	1.33	1.50	1.80	2.14	2.13	1.71	2.00	1.60	1.93
사례	편수	4	17	17	8	10	10	9	11	13	16	12	127
	저자수	5	26	25	15	13	23	19	18	21	29	24	218
	편당 저자수	1.25	1.53	1.47	1.88	1.30	2.30	2.11	1.64	1.62	1.81	2.00	1.72
계	편수	16	30	28	14	15	15	16	19	20	25	17	215
	저자수	21	50	40	23	19	32	34	35	33	47	32	366
	편당 저자수	1.31	1.67	1.43	1.64	1.27	2.13	2.13	1.84	1.65	1.88	1.88	1.70

〈표 12〉는 「경영교육연구」 발행구성별 편수와 저자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집은 단독저자가 25편으로 게재논문의 83.3%를 차지하고 있다. 논문은 단독저자가 26편으로 게재논문의 44.8%를 나타내고 있으며, 2인의 공저자가 19편으로 32.8%를 나타내어 77.6%인 45편이 1인 또는 2인에 의해 저술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한편, 사례는 단독저자가 63편으로 게재논문의 49.6%를 나타내고 있으며, 2인의 공저자가 42편으로 33.1%를 나타내어 82.7%인 105편이 1인 또는 2인에 의해 저술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집, 논문, 사례 등 총 215편에 대한 저자는 단독저자가 114편, 2인의 공저자가 65편으로

나타나 83.3%인 179편이 1인 또는 2인에 의해 저술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5인의 공저자도 논문 2편, 사례 1편 등 총 3편으로 나타났으나 5인 이상의 공동저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사회과학 계열이 공학 계열보다 공저자 수가 적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 3.3 연구자 개인에 대한 분석

#### 3.3.1 연구자별 게재 사례 및 발표자수

〈표 12〉를 연구자별 게재 사례 및 저자수로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단독저자가 63편으로 계

〈표 12〉 「경영교육연구」 발행구성별 편수와 저자수

통권 발행 호수	특집				논문				사례				계				저자 총수
	편		공저자		편		공저자		편		공저자		편		공저자		
	편수	저자 총수	공저자 수	편수	편수	저자 총수	공저자 수	편수	편수	저자 총수	공저자 수	편수	편수	저자 총수	공저자 수		
23호	30	36	1	25	58	112	1	26	127	218	1	63	215	366	1	114	366
			2	4			2	19			2	42			2	65	
			3	1			3	6			3	18			3	25	
			4	0			4	5			4	3			4	8	
			5	0			5	2			5	1			5	3	

〈표 13〉 게재 사례의 저자수

저자수	게재 사례수(A)		저자총수(B)		사례당 평균 (B/A)
	게재 사례수	비율(%)	저자총수	비율(%)	
단독	63	49.6	63	28.9	1.72명
2인 공저	42	33.1	84	38.5	
3인 공저	18	14.2	54	24.8	
4인 공저	3	2.3	12	5.5	
5인 공저	1	0.8	5	2.3	
계	127	100.0	218	100.0	

주) 외국인(미국인)이 미국대학 명의로 국내사례를 가지고 3인 공동연구로 1편 게재하였으며, 공동저자 2명은 연세대 교수임.

재논문의 49.6%를 나타내고 있으며, 2인의 공저자가 42편으로 33.1%를 나타내어 82.7%인 105편이 1인 또는 2인에 의해 저술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저자총수로 볼 때 2인 공저가 84명으로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3인 공저가 54명으로 24.8%를 차지하고 있어 2인 또는 3인이 게재 사례에 관여하는 비율이 63.3%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사례당 평균 저자수는 1.72명이다.

3.3.2 연구자별 게재 논문 및 발표자수

〈표 12〉를 연구자별 게재 논문 및 저자수로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논문은 단독저자가 26편으로 게재논문의 44.8%를 나타내고 있으며, 2인의 공저자가 19편으로 32.8%를 나타내어 77.6%인 45편이 1인 또는 2인에 의해 저술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저자총수로 볼 때 2인 공저가 38명으로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4인 공저가 20명으로 1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논문은 사례와 달리 3인 또는 4인의 공동저자도 다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논문당 평균 저자수는 1.93명이다.

3.3.3 연구자별 사례 게재횟수

〈표 12〉, 〈표 13〉의 게재 사례수는 127편이나 〈표 15〉의 게재 사례수는 171편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표 12〉와 〈표 13〉은 저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표 15〉는 게재횟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자총수는 같지만 저자별 게재횟수가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단독게재를 1회 한 경우와 공동게재를 1회 한 경우 게재 사례 수는 한편이지만 저자총수는 2명 이상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공동저자들이 사례를 단지 1회만 게재한 경우 게재횟수가 1회이지만 게재횟수에 따른 저자별 게재 사례수는 증가하여 나타난다.

〈표 15〉 사례별 게재횟수를 보면 한번 게재한 저자가 가장 많고 2번 이상 게재한 저자는 현저히 줄어든다. 가장 많은 사례를 게재한 저자의 게재횟수는 7회로서 김용규(안양대), 운동진(우석대) 등이 있다.

3.3.4 연구자별 논문 게재횟수

〈표 12〉, 〈표 14〉의 게재 논문수는 58편이나

〈표 14〉 게재 논문의 저자수

저자수	게재 논문수(A)		저자총수(B)		논문당 평균(B/A)
	게재 논문수	비율(%)	저자총수	비율(%)	
단독	26	44.8	26	23.2	1.93명
2인 공저	19	32.8	38	33.9	
3인 공저	6	10.4	18	16.1	
4인 공저	5	8.6	20	17.9	
5인 공저	2	3.4	10	8.9	
계	58	100.0	112	100.0	

주1) 한국인이 외국대학 명의로 2인 공동연구하여 1편 게재하였으며, 공동저자 1명은 연세대 교수임.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이 외국대학 명의로 2인 공동연구하여 1편 게재하였으며, 공동저자 1명은 경기대 교수임.  
 주2) 외국인(일본)이 한국대학 명의로 2인 공동연구하여 1편 게재하였으며, 공동저자 1명은 서울대 박사과정생임.

〈표 16〉의 게재 논문수는 102편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표 12〉와 〈표 14〉는 저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표 16〉은 게재횟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자총수는 같지만 저자별 게재횟수가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16〉 논문별 게재횟수를 보면 한번 게재한 저자가 92명으로 가장 많고 2번 게재한 저자는 현저히 줄어든다. 이는 한 번 게재한 공동저자가 많다는 의미이며, 지속적으로 논문을 게재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 3.4 연구자의 소속기관 분석

〈표 17〉은 사례 게재 연구자 수와 소속기관 수를 나타내고 있다. 「경영교육연구」에 사례를 게재한 연구자가 1명이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46개 기관이며, 가장 많은 연구자가 참여한 대학은 연세대학교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한국외국어대, 한

양대, 서강대, 중앙대 등이 「경영교육연구」의 사례 게재에 다수 참여하였으며, 석·박사 과정생도 이에 포함되어 전임교수가 얼마나 참여하였는지는 「경영교육연구」에 나타난 소속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한명의 연구자가 전직 등의 이유로 소속을 변경하였을 경우 소속기관을 변경하여 계상하였다.

〈표 18〉은 논문 게재 연구자 수와 소속기관 수를 나타내고 있다. 「경영교육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가 1명이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34개 기관이며, 가장 많은 연구자가 참여한 대학은 참여연구원이 17명인 연세대학교로 밝혀졌다. 그 다음으로 동의대, 서강대, 중앙대 등이 「경영교육연구」의 논문 게재에 다수 참여하였으며, 석·박사 과정생도 이에 포함되어 전임교수가 얼마나 참여하였는지는 「경영교육연구」에 나타난 소속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한명의 연구자가 전직 등의 이유로 소속을 변경하였을 경우 소속기관을

〈표 15〉 사례별 게재횟수

게재횟수	게재 사례수(A)		저자총수(B)		사례당 평균(A/B)
	게재 사례수	비율(%)	저자총수	비율(%)	
1	141	82.5	141	64.7	0.78회
2	21	12.3	42	19.3	
3	7	4.1	21	9.6	
7	2	1.1	14	6.4	
계	171	100.0	218	100.0	

〈표 16〉 논문별 게재횟수

게재횟수	게재 논문수(A)		저자총수(B)		논문당 평균(A/B)
	게재 논문수	비율(%)	저자총수	비율(%)	
1	92	90.2	92	82.1	0.91회
2	10	9.8	20	17.9	
계	102	100.0	112	100.0	

변경하여 계상하였다.

야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3.5 연구분야의 분석

#### 3.5.1 사례의 분석

1997년 5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10년 동안 「경영교육연구」에 게재된 127편의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대상, 연구방법과 연구분야, 업종과 연구분야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58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대상과 연구내용, 연구방법과 연구분

사례의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게재된 127편 중 기업을 다룬 사례가 114편으로 가장 많고 금융기관 6편, 연구기관 3편이 그 다음이며, 개인(스웨덴 발렌베리(Wallenberg) 가문의 장기소유경영), 병원(UIC시카고치과병원의 조

<표 17> 사례 게재 연구자 수와 소속기관 수

연구자 수(명)	소속기관 수	총연구자 수	소속기관명
1	46	46	
2	16	32	
3	8	24	
4	10	40	
7	3	21	중앙대, 서울대, 고려대
9	1	9	서강대
13	1	13	한양대
14	1	14	한국외국어대
19	1	19	연세대
계	87	218	

주) 연구소 포함

<표 18> 논문 게재 연구자 수와 소속기관 수

연구자 수(명)	소속기관 수	총연구자 수	소속기관명
1	34	34	
2	10	20	
3	2	6	성균관대, 건국대
4	2	8	한동대, 이화여대
5	3	15	중앙대, 서울대, 홍익대
6	2	12	동의대, 서강대
17	1	17	연세대
계	54	112	

주) 연구소 포함

직혁신과 성공요인), 언론(전자신문사의 활동기준 원가를 통한 경영개선), 지방자치단체(Y시의 벤처 기업투자를 위한 마케팅 조사)는 각각 1편씩 사례의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기업도 대부분 국내의 사례를 다루었다. 해외기업은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ompany: GE)의 워크아웃, NTT도코모(NTTドコモ, エヌ・ティ・ティ・ドコモ, NTT DoCoMo)의 디지털컨버전스시대 성장의 원천, 미국 통신회사 AT&T (American Telephone & Telegraph Co.)의 사업구조조정 등의 사례를 다루었다.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한 사례는 9편이 발표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 진출하여 현지화에 성공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로 해외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사례는 3편으로 일본 커머시사의 한국 전자상거래 솔루션시장 진출 사례, 유통 전문업체인 영국 테스코(SGS TESCO)의 한국시장 진출 사례, 하이얼(Haier)의 한국가전시장 공략 사례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우 미국 ABC 생명보험의 한국시장 진입 사례를 다루었다. 해외기업의 성공사례 등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소개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사례를 동남아에서 탈피하여 미주, 구주 지역으로 확산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례 연구방법과 연구분야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20>과 같다.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가설을 도출하거나 분석하여 검증한 단일사례가 112편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2개 이상 여러 개의 사례들을 가지고 사례간 비교분석을 통해 가설을 도출하거나 분석하여 검증한 다중사례가 7편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현상의 기술, 분석보다는 단편적인 정보(실제 및 시뮬레이션)들을 나열하는 기술적 연구가 6편, 사례연구, 설문조사 연구, 통계자료 분석, 실험 연구 등 실증적인 연구방법들 중 2개 이상을 활용한 방법론 연구가 2편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연구주제에서 필요한 개념의 정의 및 이론의 논리적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 연구 등은 지난 10년 동안 「경영교육연구」에 보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론적 연구가 사례연구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단일사례는 경영전략과 국제경영이 각각 17편, 마케팅과 경영일반이 각각 15편, 재무관리와 인사조직이 각각 11편 등으로 보고되어 경영학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

<표 19> 사례의 연구대상

연구대상		발표논문수	연구대상		발표논문수
기업	국내기업	99	금융 기관	은행	2
	해외기업	3		보험(국내)	1
	국내→해외	9		보험(미국→국내)	1
	해외→국내	3		증권	1
	소계	114		리스	1
연구 기관	기업부설	1		소계	6
	독립연구기관	2	병원	1	
	소계	3	언론	1	
개인		1	합계		127
지방자치단체		1			

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다 더 다양한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경영사례연구를 한다면 사례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에게 더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21〉은 사례를 연구한 기업의 업종과 연구분야를 정리하고 있다. 다양한 업종에 걸친 연구를 하고 있어 업종을 자세하게 나타내지는 못하였고 유사한 업종을 그룹핑하였다. 〈표 21〉을 보면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20편의 사례가 발표되어 가장 많은 사례를 게재하였으며, 섬유·의류·화학·계약·제지·출판 분야의 사례(17편), 도매·소매·무역 분야의 사례(15편), 정보통신(10편) 등의 순으로 발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20편),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과 관련한 서비스 업종(20편), 도·소매 및 무역과 관련한 업종(15편), 화학(9편), 음식료(7편), 운수장비·기계장비(7편) 등이었다. 따라서 첨단산업 분야의 사례를 흥미 있는 주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첨단산업 분야의 사례도 많이 다루고 있어 사례가 첨단산업 분

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첨단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흔쾌히 사례연구에 협조하지 않아 발표되는 사례건수가 적은 원인도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소재로 여겨지는 테마파크(2편), 영화(1편), 제약(1편), 병원(1편), 공연예술(1편), 온라인게임(1편), 인터넷광고(2편) 등의 사례발표가 부진하다. 이는 사례연구 분야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회지명이 「경영교육연구」이므로 경영과 관련된 연구를 다루어야 한다는 학회지의 발간목적에서 학제간 연구범위를 넓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보다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이루어지는 흥미 있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노력과 회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한편, 연구분야와 사례업종을 보면 국제경영에서 전자를 가장 많이(7편) 다루었고, MIS/e-biz에서 전자상거래(5편), 경영전략에서 전자(4편), 정보통신(4편) 등의 순으로 다루었으며, 기타 업종은 1편 내지 3편을 다루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

〈표 20〉 사례 연구방법과 연구분야

연구분야	단일사례	다중사례	기술적 연구	방법론 연구	계
재무관리	11		1		12
회계학	5		1		6
인사조직	11				11
경영전략	17	2			19
생산/계량	7				7
MIS/e-biz	9				9
국제경영	17	2			19
마케팅	15	1	3		19
경영일반	15	1		2	18
기술개발	2		1		3
경영철학	3				3
경영교육		1			1
계	112	7	6	2	127

면 다음과 같다.

재무관리는 지배구조(3편), 기업인수(2편), 기업 분할(1편), 합병무산(1편), 소유구조(1편), 자금조달(1편), 벤처기업투자(1편), 가치평가(1편), 재무 곤경(1편) 등 12편을 다루었다. 회계학은 BSC(2편), 환경원가(1편), 활동기준원가(1편), 신원가시스템(1편), 재무제표 활용(1편) 등 6편을 다루었다. 인사조직은 조직관리(2편), 인사관리(1편), 인사제도(1편), 노사관계(1편), 소사장제(1편), 네트워크조직(1편), 보상제도(1편), ERP 프로세스혁신(1편), 직능급(1편), 조직혁신(1편) 등 11편을 다루었다. 경영전략은 경영혁신(4편), 경영전략(3편), 다각화(2편), 전략적 제휴(2편), 사업전략(1편),

경쟁우위(1편), 국제화(1편), 차별화(1편), 글로벌 협력경영(1편), 방어전략(1편), 수성전략(1편), 글로벌전략(1편) 등 19편을 다루었다. 생산/계량은 품질경영(2편), 신제품개발(2편), 제품혁신(2편), 품질관리(1편) 등 7편을 다루었다. MIS/e-biz는 쇼핑몰(3편), 전자상거래(3편), 인터넷솔루션 시장진입(1편), 인터넷비즈니스(1편), 인터넷브랜딩(1편) 등 9편을 다루었다. 국제경영은 현지화(8편), 국제화(4편), 해외기업의 한국시장진입(3편), 해외마케팅(2편), 무역마찰(1편), 무역거래(1편) 등 19편을 다루었다. 마케팅은 고객만족(3편), 브랜드전략(3편), 물류혁신(2편), 신시장개척(2편), 합병을 위한 협상(1편), 협상교육(1편), 갈등(1편), 디자인 경영

〈표 21〉 연구분야와 사례업종

업종	재무 관리	회계 학	인사 조직	경영 전략	생산/ 계량	MIS/ e-biz	국제 경영	마케 팅	경영 일반	기술 개발	기타	계
1				2		1	1	1	2		1**	8
2	2		1	1		5	3	2	1			15
3		1	3	3	2			5	2		1**	17
4			4	2	1		2	1				10
5		1		1			2	2	1	1	1**	9
6					1		2		3	1		7
7	1	2	1	4	3		7	1	1			20
8				4		1		1	3	1		10
9	2			1		1	1	3	3			11
10	1			1								2
11			1									1
12	2		1			1	1	1				6
13	2											2
14	2	2						2	2		1*	9
계	12	6	11	19	7	9	19	19	18	3	4	127

주 1) \*: 경영교육, \*\*: 경영철학

2) 1: 어업·식음료, 2: 도매·소매·무역, 3: 섬유·의류·화학·제약·제지·출판, 4: 가축·유리·고무·합성수지·비금속광물·1차금속·기계, 5: 공연예술·테마파크·광고·영화·용역, 6: 운수장비·기계장비, 7: 전자, 8: 정보통신, 9: 정보통신 관련서비스·온라인게임, 10: 건설·건축자재, 11: 병원, 12: 금융기관, 13: 지주회사, 14: 기타.

(1편), 오프라인의 도전(1편), 관계마케팅(1편), 지역상권(1편), 틈새시장(1편), 시장평가(1편) 등 19편을 다루었다. 경영일반은 성장과정(6편), 구조조정(4편), 경영합리화(1편), 정부규제(1편), 워크아웃(1편), 아웃소싱(1편), 게임마니아(1편), 경영성과(1편), 결제시스템(1편), 경쟁제도(1편) 등 18편을 다루었다. 기술개발은 기술개발(1편), 서비스기술(1편), 정보기술(광고기획기술) (1편) 등 3편을 다루었다. 경영교육은 콘텐츠개발과 관련하여 1편을 다루었고, 경영철학은 경영철학(1편), 기업가정신(1편), 윤리경영(1편) 등 3편을 다루었다.

3.5.2 논문의 분석

〈표 22〉는 논문의 연구대상을 다루고 있다. 학교, 교수, 연구원, 학생, 튜터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논문이 30편이며, 특정기업 및 불특정기업, 금융기관(은행), 고객, 회사원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논문이 28편이다. 학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게재한 논문을 살펴보면 사이버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교육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경영교육을 중심으로 편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

반논문도 편집되는 경향이 늘고 있어 「경영교육연구」의 편집 및 연구목적에 부응하는 연구가 되도록 편집방침을 강화할 필요가 나타나고 있다.

〈표 23〉은 학교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논문 30편에 대해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원격교육(7편), 교과과정(5편), 교수방법(3편) 등이 주로 많이 논의되고 있다. 학교를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원격교육(3편)을 논의하고 있으며, 교수를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교수방법(3편)과 교과과정(3편)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수강방법과 수강태도(2편)를 제시하고 있다.

〈표 24〉는 기업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논문 28편에 대해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인사조직 중 인적자원(3편), 조직관리(3편), 경영일반의 성장과정(2편) 등의 연구비중이 높았고 그 이외의 분야는 각각 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8편의 논문이 발표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경영일반(5편), 재무관리(4편), 인사조직(4편), 마케팅(2편), 경영전략(1편), 회계학(1편), 기술개발(1편)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금융기관(은행)(1편), 고객(1편), 회사원(2편) 등의 연구가 있어 이 분야의 연구가 많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일기업사례(2편), 다중기업사례(1편) 등 3편은 「경영교육연구」 발간

〈표 22〉 논문의 연구대상

연구대상		발표논문수	연구대상		발표논문수
학교	일반대학교	5	학생		6
	사이버대학교	1	튜터		1
	일반대학원	1	기업	특정기업, 그룹	4
	경영(전문)대학원	2		불특정기업, 그룹	20
	최고경영자과정	1	금융기관	은행	1
	소계	10	고객		1
교수	10	회사원		2	
연구원	3	합계		58	

시 논문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도 이에 따라 구분하였다.

〈표 25〉는 논문의 연구방법과 연구분야를 정리하고 있다. 학교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논문 30편과 기업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집필한 논문 28편 등 58편을 연구방법으로 구분한 결과 이론적 연구가 1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법론 연구(12편), 기술적 연구(10편), 실태조사(9편)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영교육의 방법론 연구가 7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경영교육의 실태조사(4편), 단일사례(3편), 이론적 연구(3편) 등으로 나타났다. 타 연구분야를 살펴보

면 일반교육의 기술적 연구(3편), 경영전략의 이론적 연구(3편), MIS/e-biz의 방법론 연구(3편) 등으로 나타났다.

### 3.6 「경영교육연구」 발행 성과와 시사점

#### 3.6.1 「경영교육연구」 발행 성과

1997년 창간한 「경영교육연구」는 경영사례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최소한의 유인을 마련하여 경영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학계 및 기업계에서 새로운 경영학 교

〈표 23〉 논문의 연구대상과 연구내용(1)

연구내용	학교					6	7	8	9	계	
	1	2	3	4	5						
경영교육	교육평가				1					1	
	교육품질					1				1	
	교수방법					3				3	
	교과과정	1				1	3			5	
	학습모형					1				1	
	수강방법							1		1	
	수강태도							1		1	
	원격교육	3	1				1		1	7	
	대학경영				1			1		2	
	현장연구							1		1	
	모니터링							1		1	
재무관리	자본구조						1			1	
생산/계량	재고관리							1		1	
기술개발	정보기술							1		1	
경영철학	기업윤리			1		1				2	
	기업가정신	1								1	
계		5	1	1	2	1	10	3	6	1	30

주) 1: 일반대학교, 2: 사이버대학교, 3: 일반대학원, 4: 경영(전문)대학원, 5: 최고경영자과정, 6: 교수, 7: 연구원, 8: 학생, 9: 튜터

육교재 및 방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며, 경영학 교육에 있어 사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사례개발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국경영학회의 관련 경험을 축적하는데 기인한 결과로 보

인다. 그리고 한국학술진흥재단 평가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사례의 유용성이 일부 낮아지는 결과도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나 향후 각 학교의 사례 축적물에 대한 인증과 연구업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3-4년간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표 24〉 논문의 연구대상과 연구내용(II)

연구분야	연구내용	1	2	3	기업				사례		계
					4	5	6	7	8	9	
경영교육	교육품질		1								1
재무관리	관계투자					1					1
	평가모형					1					1
	부동산유동화					1					1
	가치평가					1					1
회계학	ERP					1					1
인사조직	인재양성				1						1
	인적자원					2	1				3
	조직관리					1			2		3
	커뮤니티					1					1
	취업확률			1							1
	사내교육			1							1
경영전략	경영혁신	1									1
	국제화									1	1
	전략적 제휴					1					1
마케팅	유통경로					1					1
	물류효율성							1			1
	고객만족					1					1
경영일반	성장과정					2					2
	경영현상					1					1
	경영합리화					1					1
	구조조정					1					1
기술개발	정보기술					1					1
계		1	1	2	1	18	1	1	2	1	28

주) 1: 금융기관(은행), 2: 고객, 3: 회사원, 4: 선진국기업, 5: 국내기업, 6: 태국진출기업, 7: 중국물류기업, 8: 단일기업사례, 9: 다중기업사례

를 비롯한 세계 주요 경영학회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에 대한 반성으로 현장밀착형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주요 학회지(Journal)의 출간에도 반영되고 있다(Shane and Venkataraman, 2000;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사례연구원개편 TFT, 2007.8). 이는 「경영교육연구」가 지향해온 '현장조사 연구의 발굴' 등 현장밀착형 방향에 부합되며, 향후 그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영교육연구」의 역할과 기대는 크다고 판단된다.

### 3.6.2 「경영교육연구」발행 시사점

「경영교육연구」발행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구성별 편당저자수를 년도별로 보면 체계적인 저자수의 증가나 감소의 변화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학회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

상으로 저자수의 증가나 감소가 학회지의 편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둘째, 특집, 논문, 사례 등 총 215편에 저자총수는 36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단독저자는 114편이다. 그리고 한 번만 게재한 박사과정생들이 공동저자로 다수 나타나고 있어 이들이 학회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게재하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박사과정생이 적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연구대상을 국내기업에 국한한 사례가 99편으로 사례 연구논문 127편 중 78.0%를 차지하고 있어 사례 연구대상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기업의 성공사례 등을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소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국내기업이 해외로 진출한 사례는 9편이 발표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 진출하여 현지화에 성공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25〉 논문의 연구방법과 연구분야

	단일사례	다중사례	실태조사	이론적 연구	기술적 연구	방법론 연구	계
경영교육	3	1	4	3		7	18
일반교육		1		1	3		5
윤리교육			2				2
대학경영					1		1
교육훈련			1	2			3
창업교육			1				1
재무관리	1	1				1	3
인사조직	2			1	1		4
경영전략	1	1		3	1		6
생산/계량						1	1
MIS/e-biz				2	2	3	7
국제경영		1					1
마케팅		1	1	1	1		4
경영일반		1			1		2
계	7	7	9	13	10	12	58

반대로 해외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사례는 3편을 다루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우 미국 ABC 생명보험의 한국시장 진입 사례를 다루었다.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사례를 동남아에서 탈피하여 미주, 구주 지역으로 확산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사례연구 방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보다 더 다양한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경영사례연구를 한다면 사례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에게 더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첨단산업 분야의 사례를 흥미 있는 주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첨단산업 분야의 사례도 많이 다루고 있어 사례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는 첨단산업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흔쾌히 사례연구에 협조하지 않아 발표되는 건수가 적은 원인도 있다. 그러나 흥미 있는 첨단산업 분야를 소개하는 관심과 노력 및 지원이 요구된다고 판단한다. 첨단산업과 관련한 최근의 이슈를 주제로 하여 소개하는 사례발표의 장을 「경영교육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일곱째, 재미있는 소재로 여겨지는 테마파크, 영화, 제약, 병원, 공연예술, 온라인게임, 인터넷광고 등의 사례발표가 부진하다. 이는 사례연구 분야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보다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이루어지는 흥미있는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노력과 회원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여덟째, 초기에는 경영교육을 중심으로 논문을 편집하였으나 최근들어 일반논문도 편집되는 경향이 늘고 있으므로 「경영교육연구」의 편집 및 연구 목적에 부응하는 연구가 되도록 편집방침을 강화할 필요가 나타나고 있다.

### 3.6.3 「경영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제언

「경영교육연구」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사례의 다양한 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즉, 사례의 작성과 이용에 대해 학계에 소속된 분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적극적인 사례개발을 위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논문보다 사례의 작성은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최근 연구업적을 중시하고 강화하는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를 보상하는 연구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사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현실에서 좋은 사례를 개발하려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학계에 소속된 분들이 활용할만한 국내 및 국외 사례들을 전문으로 심도있게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 및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좋은 사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업계의 협조를 얻어내는 지원역할도 필요하다. 사례를 통해 회사기밀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인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각 대학이 개발/축적한 사례들의 DB연계와 품질인증, 공동 활용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경영교육연구」의 편집/출판의 양적·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교육용 사례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현장조사연구의 보급, 출간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경영학회부설 『한국경영사례연구

원』의 다양한 활동 중 학술활동의 하나인 「경영교육연구」를 분석하고 이 학회지가 어떠한 분야의 경영사례를 게재하였는지 등 연구동향과 연구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경영학회부설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의 다양한 활동 중 학술활동의 하나인 「경영교육연구」는 1997년 5월 1일 1권 1호를 시작으로 2007년 8월 31일 11권 1호까지 「경영교육연구」의 발간 현황을 보면 통권 23호가 발간되었다. 그 동안 특집 30편, 논문 58편, 사례 127편 등 총 215편이 발표되었다.

「경영교육연구」의 발행 성과는 경영사례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유인을 마련하여 경영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판단된다. 학계 및 기업계에서 새로운 경영학 교육교재 및 방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며, 경영학교육에 있어 사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사례개발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국경영학회의 관련 경험을 축적한데 기인한 결과이다.

향후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의 발전을 통해 「경영교육연구」의 발전이 이루어져 우리 경영현실을 담은 사례의 개발과 보급, 경영교육 방법론의 연구와 확산, 사례연구 활성화를 통해 경영학 교육 및 연구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영선진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통해 한국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참고문헌

권선국·조성표(1997), 「회계학 연구」의 20년, 1977-

1996,」 회계학연구, 22(2), 203-220.

김영배·한정화(1993), "한국 전략경영 연구의 현황과 전망," 전략경영연구, 2(1), 139-187.

김용준·임양환·박세환·백수경·정상호(1999), "한국마케팅 연구 논문의 분류와 분석: 1971-1998, [경영학연구][마케팅연구][소비자연구][광고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14(2), 147-174.

김인수(2000), "한국의 경영학 연구," 경영학연구, 29(3), 293-314.

배종태·차민석(2005),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 부문의 연구동향-한국과 미국의 학술지 비교분석(1998~2004)," 벤처경영연구, 8(3), 141-177.

백상용·박경수(1995), "한국 경영정보학 연구 경향 분석: 1974- 1993," 경영정보학연구, 5(2), 37-50.

용세중(1999), "중소기업연구 20년의 성과와 평가," 중소기업연구, 21(1), 335-390.

이선구·정연양(1993), "한국 노사관계 연구의 전망과 과제," 인사조직연구, 2(1), 189-232.

이진규·박기찬(1993), "한국 인사관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인사조직연구, 2(1), 75-137.

장지인(2008. 3. 14), "『한국경영사례연구원』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 2007년도 제52기 한국경영학회 동계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35-39.

정경수·진춘동·송정희·박종필(2001), "「경영연구」 10년: 연구동향과 과제," 경영연구, 16(3), 129-148.

최만기·박오수(1993), "한국 조직행동 연구의 동향, 문제점, 과제 및 전망," 인사조직연구, 2(1), 1-74.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사례연구원개편 TFT(2007), 한국경영학회 부설 『한국경영사례연구원』 발전방안, 내부자료

한국경영학회(2007), 한국경영학회 50년사.

Shane, S. and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Achievement of 「Management Education Review」 and Future Task

Jee In Jang\* · Byung Seop Yoon\*\*

### Abstract

「Management Education Review」has published 215 articles including papers, case study, theoretical letters from may 1, 1997 to Sep 31, 2007. As we see authors per papers, 215 articles have been released by 366 authors, so the number of author per papers shows 1.70. Analyzing the session published, in term of authors, there is inclined to more co-authors in papers, but in case of special session release, an author is more than co-authors. Especially, If we look to the authors figure, an author shows 63(49.6%) and two authors 42(33.1%). Totally 105 articles are released by an or two authors. In terms of number of total author, 84 (two authors, 24.8%) are existing and 54(more than 3 authors, 63.3%) are also existing. Aspect of frequency of participation, one time authors( No of 92) is most frequent, and more than two times participation is inclined to decrease. Through the results of analyzing, It is judged that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studies has been dedicated to develop for education of management.

In order to further development of management education, we have to further more endear that this journal will be more fruitful for the academic and industry. On of the ways achieve to future task, we are all have a new way such as, DB gathered filed experience, and distribution of it. Also the usefulness of case which are gathered from school or industries has been delivered using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studies.

Key Words: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Institute of Management Case Research, Management Education Review

---

\* Chung-Ang University(jjang@cau.ac.kr)

\*\* Seoul University of Venture & Information(yoonbs@suv.ac.kr)